

# 흔적을 배제한 영상의 wh-의문문 분석

채 명 회

(전남대학교)

Chai, Myong-Hi. 1996. A Traceless Approach to Wh-Interrogative Clauses in English. *Linguistics* 4, 267-283. The use of empty categories in accounting for linguistic phenomena has been a problem in the framework of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because surface-oriented grammatical theories avoid using empty categor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interrogative clauses in English without recourse to traces and ultimately make HPSG a more consistent and refined grammatical theory. Following the methods taken by Sag & Fodor(1994) and Sag(1995;1996), this paper eliminates TO-BIND and INHERITED features, and the NONLOCAL Feature principle. Instead, the percolation of NONLOCAL features, i.e. SLASH, REL, and QUE, relies on the Lexical NONLOCAL Amalgamation, the SLASH Inheritance Constraint, and the REL/QUE Inheritance Constraint. Herein I introduce some new types for the analysis of wh-interrogative clauses in English: *wh-int-cl*, *wh-subj-int-cl*, *fin-wh-fill-int-cl*, and *inf-wh-fill-int-c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1. 머리말

흔적(trace)이란 발음되지 않는 통사적 구성요소로서 지금까지 핵어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을 비롯한 많은 문법 이론에서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어떤 언어 요소가 흔히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나타나는 무한의존구문에서 그 언어 요소가 빠져나갔다고 예상되는 자리에 흔적이라는 공범주를 설정하여 다른 자리에 나타난 언어 요소와 흔적사이의 문법적 의존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핵어문법을 비롯한 일반구구조문법(GPSG)이나 범주문법(CG)과 같은 단층위(monostatal) 문법 이론에서는 언어를 기술하는 데 있어 표면 상에서 실현되지 않는 추상적인 공범주(empty categories)<sup>1</sup>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공범주를 사용

<sup>1</sup>HPSG II에서는 공범주로 흔적(e)과 두 개의 공관계화사(null relativizer)를 설정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흔적의 원리(Trace Principle)를 지키도록하였다. 자세한 것은 다음 2절 참조.

하지 않고 핵어문법의 틀 내에서 그러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공범주론 도입한 설명 방식보다 더 일관성 있고 효과적이며,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설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흔적이 존재한다는 근거로서 이전의 다른 문법 이론에서 제시하였던 “공백(gap)을 사이에 두고 wanna축약이 불가능한 사실”이라든가 “공백앞에 양화사(floated quantifier)나 부사가 오지 못한다는 현상” 등에 대해 흔적을 사용하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음을 보이는 연구들이 있었으며,<sup>2</sup> 무한의존구문을 처리(process)하는데 있어서 흔적을 배제한 설명이 더 효율적임을 보이는 실험<sup>3</sup>과, 흔적이나 공관계화사를 사용하지 않고 추출현상(extraction) 및 관계절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이는 연구들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핵어문법의 틀에서 위와 같은 언어현상을 설명하려 할 때 공범주론 도입하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일관성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의 입장을 따라 영어의 무한의존구문중에서 wh-의문문을 분석한다. 즉, 흔적을 사용하지 않고 핵어문법의 형식안에서 wh-의문문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이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핵어문법을 보다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문법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영어의 의문문은 크게 wh-의문사가 있는 의문문과 wh-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wh-의문문만이 추출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전자만을 다룬다. wh-의문문의 특성은 wh-로 시작되는 의문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wh-의문사와 관련된 QUE 자질의 도입과 전수, 탈락에 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핵어문법은 흔히 그 발전의 단계로 보아 세 단계로 나뉜다. 문법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Pollard & Sag(1987)에 제시된 내용을 HPSG I이라 하고, 이 이론적인 틀에 일부 수정을 가하여 구체적으로 영어의 통사-의미적 현상을 기술한 Pollard & Sag(1994)의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HPSG II라 한다. 9장에서는 장차 수정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조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그 방향에 따른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Pollard & Sag(1994)의 9장 이후의 연구들을 망라하여 HPSG III라 부르며, 본 논문은 HPSG III를 기술의 기초로 삼는다.

<sup>2</sup>Postal & Pullum 1978; Bouchard 1986 참조.

<sup>3</sup>Pickering & Barry 1991 참조.

<sup>4</sup>Sag & Fodor 1994, Sag 1995, Sag 1996 참조.

## 2. HPSG II의 분석

HPSG II에서는 비주격 wh-의문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있지는 않지만 다른 구문들을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 그 설명을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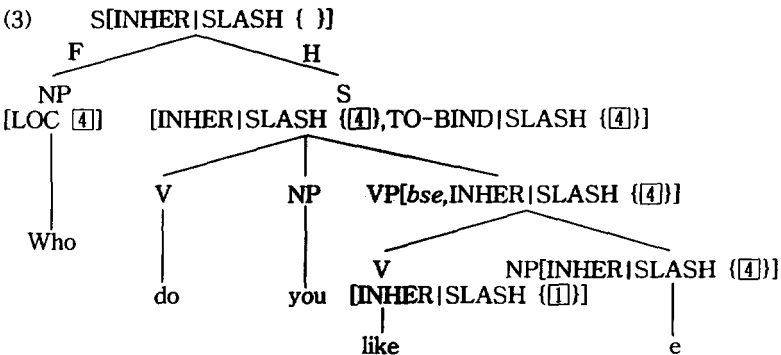
- (1) a. Who<sub>1</sub> do you like \_\_\_?
- b. Who<sub>1</sub> do you think Sandy likes \_\_\_?
- c. I wonder [which book]<sub>1</sub> you like \_\_\_?

HPSG II는 위의 예문을 설명하기 위해 흔적의 원리(Trace Principle)를 도입하고 있다.

- (2) 흔적의 원리(Trace Principle, 영어에 적용)  
 모든 흔적은 어휘핵어에 의해 엄격하게 하위범주화 되어야 한다.  
 Every trace must be *strictly* subcategorized by a substantive head.

흔적의 원리에 따르면 흔적의 SYNSEM 값은 자신을 하위범주화하는 어휘핵어의 SUBCAT 값에서 첫 번째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예로써 (1a)를 살펴보자. 문장 (1a)는 (3)과 같은 구조를 할당받는다.



위의 구조에서 흔적인 e는 어휘핵어인 like의 SUBCAT 값중에서 두 번째 원소이므로 흔적의 원리를 충족한다. e의 [SLASH {4}] 명세는 비국부자 질의 원리에 의하여 수형도상에서 위로 전수되다가 가장 상위 교점에서

TO-BIND 자질에 의해 탈락된다.

그러나 흔적을 사용한 비주격 wh-의문문에 대한 위의 분석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 번째 문제점은 TO-BIND 자질과 관련된 것이다. 핵어문법에서 TO-BIND 자질은 핵어에 명시되는 자질로서 자매범주의 비국부자질을 탈락시켜 모범주로 전수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오직 그 이유만으로 자질을 새로이 설정하는 것은 너무 비경제적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비국부자질을 탈락시키는 보다 이론화되고 경제적이며 언어보편적으로 유용한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비국부자질의 원리가 너무 강력하다는 것이다. 비국부자질의 원리에 따르면 모범주는 자신의 자범주가 가지고 있는 비국부자질 명세를 모두 전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구문도 있다.<sup>5</sup>

(4) [[A hard problem] [to solve \_\_\_]] appeared on the exam.

위 예문에서 주어 NP는 핵자범주인 NP와 후치된 보어 VP[*inf*]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VP[*inf*]에는 [INHER|SLASH (NP)]와 같은 명세가 있다. 핵자범주인 NP는 이 명세를 탈락시킬 [TO-BIND|SLASH (NP)] 명세가 없으므로 비국부자질의 원리에 의해 모범주인 NP로 전수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 이를 핵어문법의 형식 내에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그러나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 문제점은 서론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듯이 볼 수도 만질수도 없는 흔적을 사용하여 언어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면구조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핵어문법의 입장에서 볼 때 표면적으로 비현실적인(unreal) 요소인 흔적을 배제하고도 같은 언어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나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 예문을 보자.

(5) a. Who<sub>1</sub> did Lee say \_\_\_<sub>1</sub> left?

b. Who<sub>1</sub> do you think \_\_\_<sub>1</sub> ate the apple in the box?

위의 예에서 흔적들은 모두 자신을 하위범주화하는 어휘핵어(각각 *left*와 *ate*)의 SUBCAT 값에서 첫 번째 요소이므로 '엄격하게 하위범주화'되지 못했다. 이는 흔적의 원리를 위배한 것이 되므로 비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예문들은 정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HPSG II는 다음과 같은 주어추출 어휘규칙을 제안한다.

<sup>5</sup>Sag(1996, pp. 17-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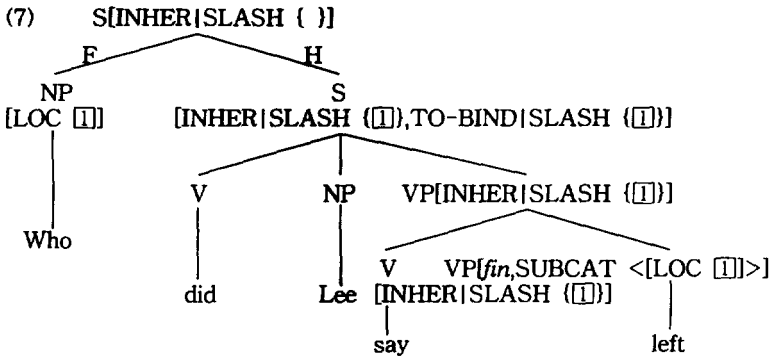
(6) 주어추출 어휘규칙(Subject Extraction Lexical Rule)

X[SUBCAT <Y, . . . ,S[unmarked], . . . >]



X [ INHER|SLASH { [ ] }  
SUBCAT <Y, . . . , VP [ SUBCAT <[LOC [ ]]> ] . . . > ] ]

이 규칙에 의하여 문장 (5a)는 (7)과 같은 구조를 할당받게 된다.



위의 구조에서 보면 어휘핵어인 *say*가 빠져있는 언어요소소에 대한 정보, 즉 [SLASH { [ ]}]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값은 동사구 보어인 *left*의 SUBCAT 값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때 [SLASH { [ ]}] 명세는 비국부자질 전수의 원리(NONLOCAL Feature Principle, NFP)<sup>6</sup>에 의하여 수형도상에서 위로 전수되다가 제일 상위 교점에서 TO-BIND 자질에 의하여 탈락된다. 주어추출 어휘규칙을 이용한 이 분석에서 우리는 흔적을 사용하지 않고 추출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게된다.

### 3. 흔적을 배제한 분석

HPSG III의 두드러진 특징은 어휘기호이거나 구절기호를 막론하고 모든 언어기호를 더욱 철저하게 유형별로 나누어 그 특성을 설명한다는 점이다. 이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p>7</sup>

<sup>6</sup>비국부자질 전수의 원리에 의하면 모범주의 비국부자질은 모든 자범주에 명시된 비국부자질들의 합집합에서 핵자범주에 명시된 TO-BIND 값을 뺀 값이다.

- (8) a. 유사한 언어기호들은 모여서 하나의 유형을 이룬다.  
 b. 이 유형들은 상위유형과 하위유형 간에 망(network)을 형성한다.  
 c. 각 유형은 고유한 속성을 가지며, 이는 그 유형의 제약으로 작용한다.  
 d. 유형이 주어진 언어기호는 자동적으로 자신의 유형과 그 상위유형이 가진 제약을 다항전수 위계(multiple inheritance hierarchy of types)를 따라 하위유형에 전수한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각 유형은 분류 기준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상위유형을 가질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영어의 wh-의문문은 *wh-int(erogative)-cl(ause)* 라는 유형에 해당하며, 이 유형은 *int(erogative)-clause* 유형의 하위유형이고 이는 다시 *clause* 유형의 하위유형이다. 각 유형이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유형	제약	상위유형
<i>int-cl</i>	[ CL-MODE <i>int</i> ]	<i>cl</i>
<i>wh-int-cl</i>	[ PHON     <..., wh-,...> ]	<i>int-cl</i>

위 표에서 가장 왼쪽은 각 유형의 이름이며 가운데는 그 유형의 속성을 제약으로 표현한 것이고, 가장 오른쪽은 그 유형의 바로 위에 있는 상위유형을 말한다.

이 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유형과 다항전수 위계의 개념을 바탕으로 Sag & Fodor(1994)와 Sag(1995;1996)이 관계절과 추출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방법들을 도입한다. Sag(1995;1996)은 앞 절에서 지적한 두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휘해어가 자신의 보어로부터 모든 비국부자질 명세를 끌어모으도록 하고, 핵자범주에 명시된 값만이 모범주로 전수되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다.

<sup>7</sup>박효명 (1996, p.11) 참조.

(10) 어휘해어의 비국부자질 융합제약 (Lexical NONLOCAL Amalgamation)

$$\left[ \begin{array}{l} \text{ARG-S} \\ \text{F} \end{array} \quad [F \sigma_1], \dots, [F \sigma_n] > \right]$$

$$\sigma_1 \cup! \dots \cup! \sigma_n$$

Sag(1996)은 어휘적 특이성을 보이는 몇몇 예외적 어휘기호를 제외한 모든 어휘기호가 이 제약을 따랐기 지켜야 하는 것으로 본다.

어휘해어가 융합한 비국부자질은 기존의 비국부자질의 원리 대신 두 개의 새로운 제약, 즉 SLASH 자질을 전수시키는 SLASH 자질 전수제약 (SLASH Inheritance Constraint)과 REL이나 QUE 자질을 전수시키는 REL/QUE 자질 전수제약(REL/QUE Inheritance Constraint)에 의해 모범주로 전수된다.

(11) SLASH자질 전수제약(SLASH Inheritance Constraint)

$$hd-val-ph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SLASH} \quad [1] \\ \text{HD-DTR} \quad [\text{SLASH} \quad [1]] \end{array} \right]$$

(12) REL/QUE 자질 전수제약(REL/QUE Inheritance Constraint)

$$hd-nexus-ph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NONLOC} \quad \left[ \begin{array}{l} \text{REL} \quad [1] \\ \text{QUE} \quad [2] \end{array} \right] \\ \\ \text{HD-DTR} \quad \left[ \begin{array}{l} \text{REL} \quad [1] \\ \text{QUE} \quad [2]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11)은 모범주의 SLASH 값이 자신의 핵자범주의 SLASH 값과 같다는 것을 말해주며 *hd-val-ph* 유형에 적용되는 제약인 반면, (12)는 모범주의 REL이나 QUE 값이 핵자범주의 REL이나 QUE 값과 같다는 것을 말해주며 *hd-nexus-ph* 유형에 적용되는 제약이다. 이 제약들은 이어지는 wh-의 문문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이겠다.

3.1. 주격 wh-의문문

주격 wh-의문문의 분석은 의외로 간단하다. 아래의 예문에서 이탤릭체

로 쓰여진 부분처럼 wh-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wh-의문문을 wh-subj-int-cl 라는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속성을 (14)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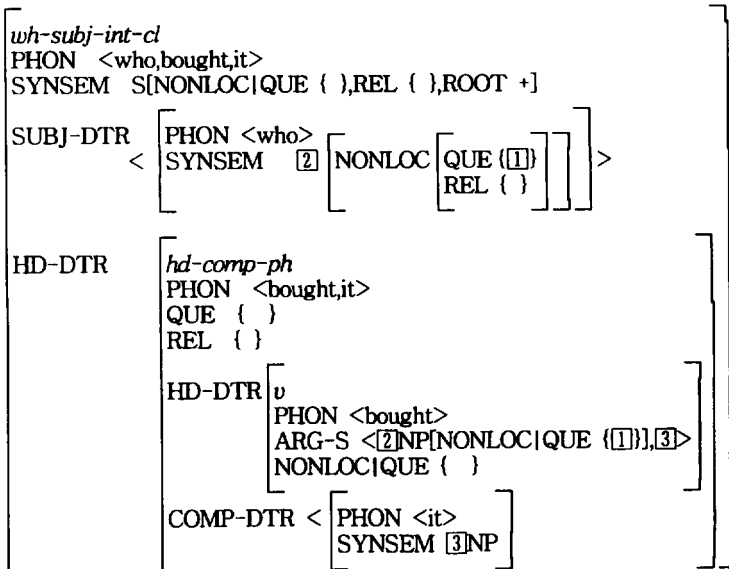
- (13) a. *Who bought it?*
- b. *What is your favorite food?*
- c. *I wonder who likes you.*
- d. *I wonder what pleased my mother-in-law.*

(14)

유형	계 약	상위유형
wh-subj-int-cl	[SUBJ-DTR NONLOC [QUE neset REL eset ] ]	wh-int-cl & hd-subj-ph

(13a)의 문장에서 비국부자질들이 어떻게 전수되는가는 (15)에서 볼 수 있다.

(15)





위 절은 *wh-subj-int-cl* 유형으로서 주어에 영이 아닌(nonempty) QUE 값을 갖는다. 그러나 이 QUE 값은 해자범주가 아닌 주어에 있기 때문에 QUE 자질 전수제약에 의하여 모범주로 전수되지 못한다. 한편, 어휘핵어 *bought*는 [QUE ([1])]이 명시된 [2]NP를 논항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 값을 융합하지는 않는다. 영어의 시제성 동사는 자신의 주어로부터는 비국부자질 명세를 끌어모으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who*가 명시하고 있는 QUE 값 명세는 더 이상 모범주로 전수되지 못하고 탈락되며 이는 어떠한 원리나 제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다른 절에 내포된 주격 wh-의문문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않겠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wh-의문문과 관련된 비국부자질, 즉 SLASH와 QUE의 전수는 어휘핵어의 비국부자질 융합제약과 두 개의 제약 즉 SLASH 자질 전수제약과 QUE 자질 전수제약이 공동으로 관여된다. 이들의 활동상황은 다음 절에서 논의할 비주격 wh-의문문 분석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 3.2. 비주격 wh-의문문

두 번째로 예문 (16)과 (17)에서 이탤릭체로 쓰인 부분처럼 wh-의문사가 충어 역할을 하는 wh-의문문을 *wh-fill-int-cl*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속성을 (18)처럼 정의할 수 있다.

- (16) a. *Who do you like?*
- b. *On which table did you put the book?*
- c. *How tall is she?*
- d. *I wonder who you like.*
- e. *I wonder to whom my mother gave her neckless.*
- (17) a. *I wonder who to give my neckless to.*
- b. *I wonder to whom to give my neckless.*
- (18)

유형	제약	상위유형
<i>wh-fill-int-cl</i>	[ FILL-DTR [ NONLOC [ QUE REL neset eset ] ] ]	<i>wh-int-cl</i>

<sup>8</sup>Chai(1996), 6장 참조.

우리는 예문 (16)과 (17)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6)은 시제성인 반면 (17)은 비시제성이다. 이에 따른 통사적 차이점은 (16)과 같은 시제성 비주격 wh-의문문에서는 NP나 PP뿐 아니라 AP도 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 (17)과 같은 비시제성 비주격 wh-의문문에서는 NP와 PP만이 충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을 포착하기 위해 *wh-fill-int-cl* 유형의 하위유형으로 *fin-wh-fill-int-cl*<sup>9</sup>와 *irf-wh-fill-int-cl*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한다.

(19)

유형	계 약	상위유형
<i>fin-wh-fill-int-cl</i>	[ FILL-DTR   HEAD n ∨ p ∨ a ]	<i>wh-fill-int-cl</i> & <i>fin-hd-fill-ph</i>
<i>irf-wh-fill-int-cl</i>	[ FILL-DTR   HEAD n ∨ p ]	<i>wh-fill-int-cl</i> & <i>irf-hd-fill-ph</i>

새로이 도입된 두 개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Pollard & Sag (1994)의 9장에서 제안한 보어추출 어휘규칙 (Complement Extraction Lexical Rule)을 받아들인다.

(20) 보어추출 어휘규칙 (Complement Extraction Lexical Rule)

$$\left[ \begin{array}{l} \text{COMPS } \langle \dots, \boxed{1}, \dots \rangle \\ \text{ARG-S } \langle \dots, \boxed{1}, \dots \rangle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COMPS } \langle \dots \rangle \\ \text{ARG-S } \langle \dots, \boxed{1} \rangle \\ \text{LOC } \boxed{3} \\ \text{SLASH } \{ \boxed{3} \} \end{array} \right] \right]$$

(20)의 입력부와 출력부를 비교해 보면 입력부에서 COMPS의 값으로 있던 1이 출력부에서는 추출되었으며, ARG-S의 값으로 있는 1에 [LOC 3, SLASH {3}]이라는 정보가 추가되었다. 이는 SYNSEM 값이 1인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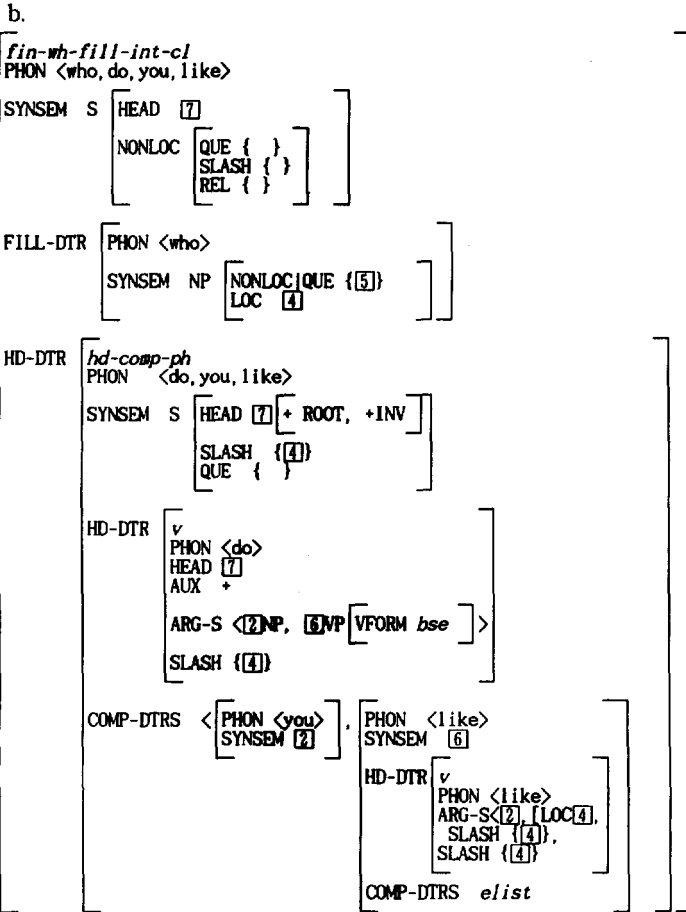
<sup>9</sup>한편, *fin-wh-fill-rel-cl* 유형의 관계절은 NP와 PP만을 충어로 허용하기 때문에 이와 구별되는 *fin-wh-fill-int-cl*라는 새 유형이 필요하다.

- (1) a. Sandy wondered *which party Leslie was going to*. (interrogative)
- b. Sandy wondered *to which party Leslie was going*. (interrogative)
- c. Sandy wondered *how expensive the wine was*. (interrogative)
- d. The doctor *who worked for Kim* died. (relative)
- e. The doctor *for whom Kim worked* died. (relative)

어가 빠져나가고 없다(slashed)는 정보를 어휘핵어의 어휘정보 속에 표시한 것이다. 즉, 어휘핵어가 자신의 논항중 빠져나가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사실을 자신의 어휘정보 속에 포함하게 함으로써, 별도의 공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제 *fin-wh-fill-int-cl* 유형의 wh-의문문 내에서 비국부자질이 어떻게 도입되고 전수되며 탈락되는 지를 (21)에서 볼 수 있다.

(21) a. Who do you like?



## (22) 핵어-충어 도식(Head-Filler Schema)

S → Filler-Dtr, Head-Dtr Phrase  
 [SLASH ( )] [LOC (□)] [SLASH (□)]

여기에는 두 개의 비국부자질 즉, SLASH와 QUE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 두 국부자질의 생애는 전혀 다르다. 먼저 SLASH 자질의 생애를 보자. SLASH 자질이 태어나는 곳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휘핵어 *like*의 어휘내항(lexical entry) 내어서이다. 이때 어휘내항은 보어추출 어휘규칙의 출력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like*는 자신의 보어가 가지고 있는 [SLASH (□)]를 융합하여 (어휘핵어의 비국부자질 융합제약) 모범주(□VP)로 전수한다(SLASH 자질 전수제약). 다시 상위의 어휘핵어인 *do*가 자신의 보어(□VP)가 지니고 있는 [SLASH (□)]명세를 끌어 모아(어휘핵어의 비국부자질 융합제약) 모범주 S로 전수한다(SLASH 자질 전수제약). 이 [SLASH (□)] 명세는 마침내 *hd-fill-ph* 유형인 가장 바깥구조에 이르러 그 유형에 대한 제약에 의해 생애를 마감하게 된다. 한편, QUE 자질의 생애는 비교적 간단하고 짧다. 다른 *wh*-의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QUE (□)]는 *wh*-의문사인 *who*에서 태어난다. 그런데 이 [QUE (□)]명세는 논항이 아닌 충어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모범주로 전수되지 못하고(QUE 자질 전수제약) 짧은 생애를 마치게 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위유형인 *inf-wh-fill-int-cl* 유형을 살펴보자. 비시제성 비주격 *wh*-의문문은, 비시제성 비주격 관계절이 PP만을 충어로 허용하는 것과는 달리 PP와 NP를 충어로 허용한다.

- (23) a. I wonder *who to place my trust in*. (interrogative)  
 b. I wonder *in whom to place my trust*. (interrogative)  
 c. the baker *in whom to place your trust* (relative)  
 d. \*the baker *who(m) to place your trust in* (relative)
- (Sag 1995b, p.37)

(23a)에서의 비국부자질의 흐름을 (24)에서 볼 수 있다. 이 유형에서의 설명은 앞에서 본 *fin-wh-fill-int-cl* 유형에서와 거의 비슷하다. 이 구문에서는 전치사 *in*의 목적어가 추출되어 있다. LOC 값이 □인 목적어가 빠져있다는 정보를 핵어인 *in*이 [SLASH (□)]라고 명기하고 있으며(보어추출 어휘규칙), 이 명세는 어휘핵어의 비국부자질 융합제약과 SLASH 자질 전수제약의 공동작업에 의해 구조상에서 위로 전수되다가 핵어-충어 도식에 의해 탈락된다. 한편, *who*에 명기된 [QUE (□)]는 핵자범주가 아닌 충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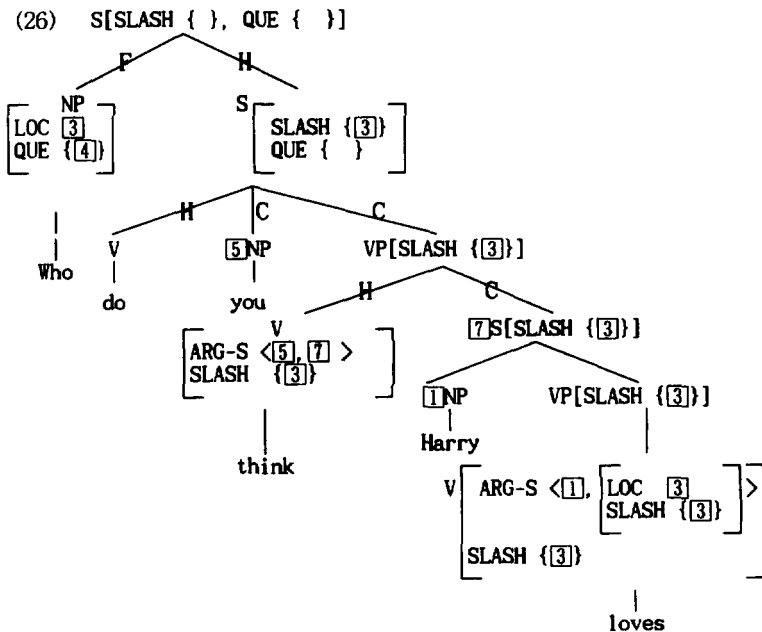


예문들은 2절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단지 비국부자질 전수의 원리 대신 SLASH 자질 전수계약과 QUE 자질 전수계약 그리고 어휘핵어의 비국부자질 융합계약을 사용한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이제 wh-의문사가 내포의문문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예를 보자.

- (25) a. *Who do you think Harry loves?*
- b. *What did they say Sally bought yesterday?*
- c. *How many guests did you say you invited?*

(25a)에는 (26)과 같은 구조를 배당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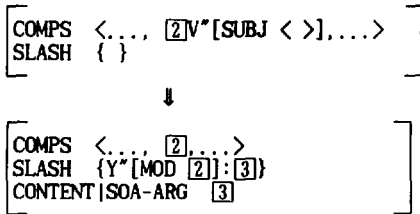


위 구조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어휘핵어 *loves*는 보어추출 어휘규칙의 출력부로서 자신의 논항으로부터 [SLASH {3}] 명세를 끌어모은다(어휘핵어의 비국부자질 융합계약). 이 [SLASH {3}] 명세는 다시 SLASH 자질 전수계약과 어휘핵어의 비국부자질 융합계약의 상호작용으로 수행도의 위쪽으로 전수되다가 마침내 제일 상층부에서 탈락된다(핵어-층어 도식). 한편 QUE 자질의 생애는 매우 간단하다. 어휘핵어 *loves*의 어휘내항에는 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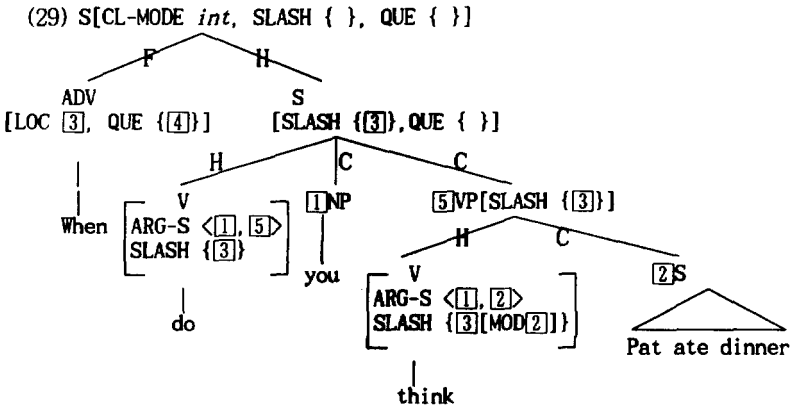
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논항이 없다. 다시 말해 어휘핵어 *loves*가 끌어모을 QUE 명세가 없는 것이다. 또한 *who*에 명시된 [QUE {4}]는 핵자범주가 아닌 층어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모범주로 전수되지 못하고 탈락되고 만다(QUE 자질 전수계약).

(27)에서처럼 wh-의문사가 내포의문문에서 부가어(adjunct) 역할을 하는 구문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Pollard & Sag(1994)의 9장에서 제안한 부가어 추출 어휘규칙(Adjunct Extraction Lexical Rule)을 받아들인다.

- (27) a. *When do you think Pat ate dinner?* (P&S-94, p.176)
- b. *Where do you believe (that) she will camp?*
- c. *Why do they suppose (that) she killed him?* (P&S-94, p.177)
- (28) 부가어추출 어휘규칙(Adjunct Extraction Lexical Rule)



(27a)의 문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받게 된다.



위에서 *think*의 어휘내항은 부가어추출 어휘규칙의 출력부로서 자신의 목적어인 [2]S를 수식하는 요소가 빠져나갔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SLASH

([3[MOD [2]]])). 이 정보는 어휘핵어의 비국부자질 융합계약과 SLASH 자질 전수계약의 상호작용으로 S교점까지 전수되다가 핵어-충어 도식에 의해 수형도의 제일 위에서 탈락된다. 한편, *think*는 빠져나간 요소에 대해 LOC 값만 명시하고 있을 뿐 비국부자질 특히 QUE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충어인 *when*에 명시된 [QUE {4}]는 더 이상 모범주로 전수되지 못하고(QUE 자질 전수계약) 탈락되고 만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표면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언어요소인 흔적을 사용하지 않고 핵어문법의 틀내에서 영어의 wh-의문문을 분석할 수 있음을 보였다. Sag & Fodor(1994)와 Sag(1995:1996)이 흔적을 사용하지 않고 관계절과 추출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 즉, 기존의 비국부자질 전수의 원리를 대신한 SLASH 자질 전수계약과 REL/QUE 자질 전수계약, 그리고 어휘핵어의 비국부자질 융합계약을 받아들였다. 또한 유형의 다항 전수 위계에 따라 전수되는 제약들에 기반을 두고 기술하였으며, 새로이 몇 개의 유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핵어문법이 지향하는 바대로 어휘주의(lexicalism)와 핵어중심적(head-driven) 기술에 더욱 가까워 졌다는 것임이 있다.

그러나 영어의 wh-의문문에 대한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의문문에서의 어순문제와 의미적 분야에 관한 연구, 또 wh-의문사가 부가어로 쓰인 경우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다음의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박병수. 1994. "핵어중심구조문법," 현대언어학 지금 어디로. 장석진 엮음. 서울: 한신문화사.
- 박효명. 1996. "핵어문법의 새로운 전개," 어학교육, 25-2.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 Bouchard, Denis. 1986. "Empty Categories and the Contraction Debate," *LI* 17, 95-104.
- Chai, Myong-hi. 1996. *A Constraint-Based Analysis of Unbounded Dependency Constructions in English*. Ph.D dissertation, K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Hukari, Thomas and Robert D. Levine. 1994. "Adjunct extraction," *WCCFL* 12.
- Pickering, Martin and Guy Barry. (1991). "Sentence Processing without Empty



- Categories,"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6, 229-259.
- Pollard, Carl & Ivan Sag. 1987. *Information Based Syntax and Semantics, Volume 1: Fundamentals*. CSLI Lecture Notes Number 12, Stanford University.
- Pollard, Carl & Ivan Sag.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nd Stanford: CSLI publications.
- Postal, Paul & G. Pullum. 1978. "Traces and the Description of English complementizer Contraction," *LI* 9, 1-29.
- Sag, Ivan A. 1995. "English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Unpublished article.
- Sag, Ivan A. 1996. "Constraint-Based Extraction." ms., Stanford University.
- Sag, Ivan A. and Janet D. Fodor. 1994. "Extraction without traces," *Proceedings of WCCFL* 13, Stanford: CSLI publications.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영문학과  
500-757